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1(금) ~ 2024.11.7(목)

제공일시 2024 11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1(금) ~ 2024.11.7(목)

제공일시 2024 11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글로벌 정책

### 1. 日, 배터리 여권 도입...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일본이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함.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차원임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유럽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전기 배터리의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지 내 사용되는 광물의 채취지나 거래처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구축할 예정임
- 배터리 여권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닛산 자동차와 혼다, 덴소, 마쓰다 등 여러 일본 제조업체가 협력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 중임

[\(더구루 2024.11.3\)](#)

### 2. 영국 최대 규모 풍력발전소 계획... 10만 가구에 전력 공급

- 영국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번 주 제출될 예정임
- 영국 가디언지는 5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풍력발전소가 될 큐비코(Cubico) 프로젝트가 이번 주 그레이터 맨체스터 인근 스카우트 무어 지역에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함
- 발전소는 약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용 전력 수요의 10% 이상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스카우트 무어 풍력발전소가 허가를 받으면 영국 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육상 풍력발전소가 될 것임

[\(시타임스 2024.11.5\)](#)

### 3. 美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항공기 대체연료 사용 10배로”

-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항공업계가 친환경 대체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대폭 늘리기로 함
- 캘리포니아 항공자원위원회(CARB)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2개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 A4A)’와 SAF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양측은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SAF 사용량을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인 2억 갤런(약 7억5천700만L)으로 늘려 지역 내 항공 수요의 약 40%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움
- 이번 협력은 캘리포니아주의 ‘저탄소 연료 표준’ 정책에 의해 촉진된 대체 연료 개발을 통해 실현 가능하게 됐다고 CARB는 설명함

[\(연합뉴스 2024.10.31\)](#)

## 국내 정책

### 1. 대통령실 “원전 계속 운전 허가 10년→20년 확대 검토”

- 대통령실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힘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함
-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영 심사의 단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선일보 2024.11.6\)](#)

### 2. 국토부, ‘수소도시 2.0’ 전략 발표… 전국 12곳 선정

- 정부가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힘
- 수소도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아파트·건축물·교통시설까지 수소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생산·이송 및 활용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함
- 오는 2025년까지 총 12곳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함. 추진 도시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양주 △부안 △광주 동구 △울진 △서산 △울산임
- 이들 도시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90km, 2024년까지는 280km의 수소배관이 설치될 예정임

[\(서울경제 2024.11.1\)](#)

### 3. 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힘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임
-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임

[\(메트로신문 2024.10.31\)](#)

## 글로벌 기업

### 1. 中 BYD, 태국서 고급 전기차 판다... 덴자 D9 출시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장악 중인 태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짐
- 3일(현지시간) CNEV포스트에 따르면, BYD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덴자는 태국에서 D9 MPV(다목적 차량) 프리미엄과 AWD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태국은 덴자가 홍콩, 캄보디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 진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임

[\(지디넷코리아 2024.11.5\)](#)

### 2. 미쓰비시와 닛산, 자율주행·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설립 발표

- 일본의 미쓰비시와 닛산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새로운 합작회사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이며, 두 기업이 동등한 지분을 가질 것이라고 함. 또, 이 합작회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짐
- 이런 움직임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됨

[\(공감신문 2024.11.4\)](#)

### 3. 구글·MS, 중동에 잇달아 AI 허브 구축... 에너지 산업에 AI 기술 도입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동 지역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함. 이들은 현지 석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을 투입할 예정임
- 구글과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 구글은 이 AI 허브를 통해 아랍어 언어모델 연구와 '사우디 맞춤형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구글과 사우디 공공투자 기금은 '사우디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시타임스 2024.11.6\)](#)

### 4. 中 CNGR, 인니에 14.5조원 들여 배터리 생산단지 조성

-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중웨이신소재(CNGR·中偉)가 인도네시아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생산단지를 건설하기로 함
- 연합뉴스는 31일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비즈니스(Bisnis) 등을 인용, CNGR 인도네시아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CNGR이 10~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05억달러(14조5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글로벌경제신문 2024.10.31\)](#)

## 국내 기업

### 1. 포스코, 소재보국 잔결음...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 한다

-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인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에 포스코그룹이 팔을 걷음. 이차전지 광물부터 이어지는 첨단산업에 대한 역대 밸류체인 안정화 행보임. 삼성, SK, 인텔 등이 주 고객이 될 전망임
- 장인화 회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소재보국'의 일환으로 업계는 해석 중임
- 5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이 광양 동호안 부지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힘
- 이번에 건립하는 광양 공장에서는 약 13만 노멀입방미터(Nm<sup>3</sup>)의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할 예정임. 국내 수요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임

[\(아시아투데이 2024.11.5\)](#)

### 2. DL이앤씨 카본코, 북미 CCUS 시장 첫발... 캐나다 비료기업과 맞손

- DL이앤씨 자회사 카본코가 캐나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시장에 진출함
- 캐나다 비료기업 제네시스퍼틸라이저스(Genesis Fertilizers)는 5일(현지시간) 카본코와 저탄소 비료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힘
- 양사는 제네시스퍼틸라이저스가 서스캐처원주(州) 벨플레인에 건설하는 비료공장에 최첨단 탄소포집 및 저장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임

[\(더구루 2024.11.6\)](#)

### 3. LG엔솔, 배터리SW 사업화... 현대차와 사용료 협상

-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소프트웨어(SW) 사업화에 본격 착수함.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안전진단 SW 사용료 논의를 시작함
-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현대자동차에 이 SW를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과금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임.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전진단 SW에 대한 유료화에 나선 게 확인된 건 처음임

[\(전자신문 2024.11.5\)](#)

### 4. 세아윈드 英 공장 투입 원자재 첫 공급... 내년 상업생산 가동 속도

-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SeAH Wind)가 해상풍력 모노파일(하부구조물) 신공장에 투입할 원자재를 처음 공급받음
- 세아윈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 항구를 통해 원자재를 받고 신공장 가동에 속도를 냄
- 내년 3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예정임. 최대 길이 120m, 직경 15.5m, 중량 3000t의 모노파일을 연간 100~150개가량 생산할 계획임

[\(더구루 2024.11.1\)](#)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1.1(금) ~ 2024.11.7(목)

제공일시 2024 11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프랑스, 유로7 벌금 재검토 촉구... 전기차 불황에 따른 규제 유연성 요구

- 프랑스는 내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 배기가스 배출 규제 유로7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비중을 충분히 높이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서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앙투안 아르망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EC)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벌금 규제를 재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다른 국가들과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함

-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율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함. 규제 준수를 위해 내년 말까지 2021년 대비 배출량을 15% 줄이려면 내연기관차 4대당 1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한다고 업계는 분석했음

- 하지만 프랑스의 르노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규제 완화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음.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면서 유럽에서 EV 판매 성장이 둔화했으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

- 올해 들어 현재까지 EU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3.1%로 하락했음. 전기차 판매 둔화와 중국 경쟁업체의 저가 모델 공세로 인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계획 중이며, 스텔란티스 등은 수익률 급감을 경고하고 있음

- 아르망 장관은 탄소 배출 규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면서도, 프랑스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목표에 대한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5년 규제 목표는 유지하되, 유럽 산업을 돕는 적절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신속히 제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르노의 연구에 따르면,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2%에 도달해야 함. 하지만 현재 13.1%의 점유율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음. 다만, HSBC 애널리스트는 벌금 규모가 51억유로(약 7조6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훨씬 낮게 전망했음

- 폭스바겐은 규제 시행의 유연성을 요구했지만,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하려 한다면 생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며 전환에 적극적이었으나, 예상보다 낮은 수요로 인해 다수의 공장이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마누엘 칼바이트 수석 경제학자는 과거에도 초기에는 어려워 보였던 규제를 자동차 업계가 준수해 왔음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음

[\(임팩트온 2024 11 5\)](#)